

위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작년과 올해

대주교 · 추기경 마에다 만요

주님의 탄생과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일본 내방에 대한 기쁨의 여운 속에 맞이한 2020 년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으로 사순절 미사도 부활절 미사도 비공개로 봉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성령강림절과 성탄절 미사 뿐만 아니라 신년 미사마저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이 강화되는 관계로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코로나 재앙이 몇 달 일찍 덮었다면 교황 프란치스코의 일본 방문이 무산되었을 지도 모른다. 몇 달 늦어서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생각합시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코로나 재앙을 극복합시다.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교황님의 방일 주제는 코로나 재앙 가운데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관련 집단따돌림이나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호소와 ‘더불어 살아가자’는 격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메시지를 묶은 『팬데믹 후의 선택』과 회칙 『Fratelli Tutti (가칭:형제 자매 여러분)』이 그것입니다. 교황님의 의향을 반영하기 위해 오사카 교구는 2021 년도 목표를 발표하여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I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금” 창설

이미 교구의 사제 평의회와 자문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실이지만, 『시보』의 새해 인사로 전교구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교황님의 일본 강연에 부응하기 위한 일입니다. 또한 교황님의 호소에 부응하기 위한 일본 주교단의 메시지를 수행하기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1. “핵없는 세계 기금”을 협찬하기 위해

‘핵없는 세계 기금’은 피폭지를 방문하신 교황 프란치스코가 핵무기 근절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마련한 히로시마 교구의 시라하마 주교는 ‘모든 피폭자와 전쟁 희생자의 위령을 위해 핵무기 폐기에 연대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ICAN (핵무기 폐기 국제 캠페인)의

가와사키 위원은 ‘언젠가는 실제로 핵무기를 해체하는 자금도 시민들의 성금으로 전개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의 서명·비준국이 50 개국에 달했으며, 2021 년 1 월 22 일에 발효될 것이 결정되었지만, 서명·비준국을 100 개국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의 서명·비준을 요청하고 적어도 핵무기 금지 조약의 당사국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할 것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핵없는 세계’ 활동을 위한 기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협찬 법인의 자격을 준수할 것입니다.

2. “황새의 요람 in 간사이”를 협찬하기 위해

‘벧속의 아기도 중요한 사회의 일원임을 일깨우는 다양한 활동’에 협찬 법인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3. “재해 긴급 구호”를 위해

갑작스런 재해 구호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4. "생태 유지"를 위해

‘라우다토 시’에서 요청한 ‘우리의 공동의 집을 돌봄에 관하여’에서 특히 ‘생태 유지’를 위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매년 9 월 1 일부터 10 월 4 일까지 “모든 생명을 지키는 월간” 기간을 마련하여 전교구에 특별 헌금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 헌금의 용도는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실시 결과를 각 교구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II “복자 유스토 타카야마 우콘 시성” 추진

1. “겨울 무지개 바라보고 가자 우콘 축제”

2017 년 2 월 7 일 오사카 성 홀에서 유스토 타카야마 우콘의 시복식이 거행된 것은 큰 기쁨이었지만 결코 목적이 달성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믿음의 간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시성을 위한 기도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시성을 위한 새로운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9 년 10 월 11 일에 도쿄 교구에 있었던 시성신청관할권이 오사카 교구로 반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20 년 10 월 2 일에는 ‘유스토 타카야마 우콘 생애도 10 점’이 작자 무라타 카요코 님 (유키노 시타 교회 소속)으로부터 기증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를 겸해 2021년 2월 6일에 오사카 대성당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복자 유스토 타카야마 우콘 시성 기원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콘 시성을 위해 오사카 교구 전체의 본격적인 활동의 재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오사카 세미나리오” 개설

우콘님이 일본 선교를 위해 진력한 것은 특히 ‘세미나리오’ 활동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축조한 아즈치 성 성벽 아래에 ‘아즈치 세미나리오’를 건립해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사제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일본 26위 성인의 선두 주자였던 성 바오로 미키도 이 세미나리오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무라타 화백의 ‘우콘 생애도’에도 밝은 빛을 발하는 성 바오로 미키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작한 ‘오사카 세미나리오’에도 올해는 반드시 ‘세미나리오 신입생’이 들어와 배울 예정입니다. 소명 축진을 위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Ⅲ 위드 코로나·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재앙은 교회의 미사, 성사, 전례 등 가톨릭 교회에도 새로운 신앙방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감염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미사와 성사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만들기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선교와 사목의 디지털화·리모트화라는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종교 = 가정교육’ · ‘종교 = RELIGIO = 재결합’ · ‘교회 = 에쿠레지아 = 집회’ 등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논란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교황님의 메시지를 묶은 『유행성 후 선택』과 회칙 『Fratelli Tutti (가칭: 형제 자매 여러분)』의 가르침을 고려하면서 교회의 새로운 신앙방식을 찾아 갑시다.